

54. 카이스트 연계 오송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타운 조성

주관부서	바이오정책과	과장	김주희(☎4510)	오송캠퍼스조성팀장	김주호(☎4541)
				담당자	이중호(☎4542)
신규 / 계속	임기내 / 임기후	예산 / 비예산	사업주체	국가	

□ 필요성

- **(바이오 강국) 2030 세계 바이오산업(44조 달러) > 반도체·자동차·화학(3.6조 달러)**
※ (국가 바이오 경쟁력 하락추세) '09년 15위 → '12년 22위 → '16년 24위 → '18년 26위
- **(KAIST 수월성) 국내 과학기술 인재양성 1위 KAIST*가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바이오 융합인재(디지털의료, AI 기반 신약개발, 의료기기 등) 양성 최적**
* '21년 QS 세계대학평가 KAIST 41위(공학기술 분야 최근 4년 국내 1위)
- **(오송 바이오클러스터)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을 견인하는 오송 생명과학단지를 바이오헬스 산업 R&D 거점으로 육성, 산업혁신 및 지역균형발전 이바지**

□ 사업개요

- 위 치 :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(오송 제3 국가산단 內)
- 사업기간 : 2023. ~ 2027. (5년)
- 주요내용 : 캠퍼스타운 부지 매입 및 캠퍼스 교육·연구시설 등 건설
- 규 모 : 14만평(충청북도, 청주시 제공)

※ (28년 이후) 병원 및 8만평 규모 창업·연구타운 조성하여 바이오 혁신 생태계 완성
 • 난치병 임상병원(800병상), 글로벌 디지털 연구병원(300병상) 유치 추진
 • 난치성 질환연구소, 신약개발 AI·양자 융합연구소, 코디네이팅센터 등 창업·연구타운

- 사업비 : 총 6,500억원

구분	내역	재원(%)
부지매입 및 Campus 구축	○ 캠퍼스타운 부지 매입(3,000)	지방비 100
	○ 캠퍼스 교육시설 등 건설(3,500) - 의과학대학원, 뇌인지과학과, 디지털의료융합학과, 바이오융합공학과, 의생명융합공학과 등 (건물 10동, 연면적 5만평 정도)	국비 100
합 계	국비 3,500억원, 도비 1,500억원, 시비 1,500억원	

□ 연도별 투자계획

(단위 : 억원)

구분	총계	기투자	임기내						임기후
			소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
계	6,500	-	6,500	-	-	3,150	2,000	1,350	-
국비	3,500	-	3,500	-	-	150	2,000	1,350	-
도비	1,500	-	1,500	-	-	1,500	-	-	-
시군비	1,500	-	1,500	-	-	1,500	-	-	-
기타	-	-	-	-	-	-	-	-	-

□ 분기별 추진계획

연도별		추진사항	비고 (이행율)
기 추진사항		· 카이스트 오송캠퍼스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('22.7월)	5%
임 기 내	2023년도 상반기	· 정부계획 입안 및 국무회의 의결	10%
	2023년도 하반기	·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신청 및 국비확보 추진	20%
	2024년도 상반기	· 설계용역 발주	25%
	2024년도 하반기	· 설계추진	30%
	2025년도 상반기	· 캠퍼스 조성공사 착공	40%
	2025년도 하반기	· 캠퍼스 조성공사	50%
	2026년도	· 캠퍼스 조성공사	60%
임기 후		· 캠퍼스 조성공사	100%

중앙정부 도움

- 오송3산단 농지전용 조기해제 - 농림부
- KAIST 오송캠퍼스 예타면제 및 국비 건의 - 기재부, 과기부

□ 추진실적

- KAIST-충청북도-청주시 캠퍼스타운 조성 협약체결 : '22.03.22.
- 인수위 균형발전 지역공약 중 충청북도 정책과제로 선정 : '22.04.27.
-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조성 세부계획 수립 : '22.07.~12.

□ 기대효과

-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으로 국가 신성장동력 확보 생태계 조성
 - 바이오헬스 세계시장 점유율 6배('18년 1.8% → '40년 10%) 확대 기여
- 바이오 기술 초격차 선도 및 대체불가 기술확보 발판 마련으로 경제 성장과 국민 건강보장 강화 기여
 - 바이오 대전환에 대응한 디지털 바이오 육성 생태계 조성
- 양질의 바이오산업 신규 일자리 8만명 창출('40.) 지원
 - 5개 글로벌 바이오 데카콘, 1,000개 바이오 벤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
- 오송 글로벌 바이오밸리 확장 및 활성화로 국가균형발전 기여